
<촛불> 72시간 공동행동, '인권'은 이렇게 해요~

2008년 6월 5일 오전 10:09

안녕하세요,

촛불 기획팀에 결합하고 있는 김정아(인권재단 사람)입니다.

비가 오는데도 촛불은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72시간 공동행동 이미 소식 알고 계시겠죠.

어제 저녁 기획팀이 논의해서 인권활동가들도 '72시간 공동행동'에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꿈틀대는 거대한 정치공간에서 인권을 알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힘 있는 요구를 훼손시키지 않고 잘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거리시위와 병행되기 때문에 매우 유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겠지만 일단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많은 참여와 함께 의견도 활발하게 주세요.

<헌법 1조 길거리 특강>

헌법 1조는 이번 촛불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인기곡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주권'의 회복을 갈망한다는 의미겠죠. 헌법 속에 잠자고 있는 '국민주권'을 흔들어 깨우는 수십 만의 목소리를 좀 더 단단한 정치적 힘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인권적 토대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토론도 함께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학자나 변호사, 연구활동가들의 강의와 함께 시민들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진보넷이 현장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공권력 인권침해 사례 접수 및 상황실 운영>

인권활동가들의 공권력대응 활동에 시민들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티즌에게 집시법은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폭력, 불법채증, 불법연행 등 시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분노는 촛불을 모이게 하는 강력한 화력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공권력의 인권침해 사례를 모으고 감시팀 상황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참, 집시법 폐지 서명도 함께 받으려구요.

<인권활동가 집담회>

2차 집담회를 6월 25일로 예정했지만, 우리가 서둘러 만나 논의해야 할 만큼 정국은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민혁명'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거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요청 속에서 인권활동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어 봅시다.

<바뀌요! - 의견 개진 또는 선전활동>

인터넷이나 촛불에서 이따금씩 ‘인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로 대통령을 욕한다던지, 광우병을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병이라고 한다던지 말이죠. 대자보로 우리 의견을 알리고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직접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일정 -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5일

오후 5시 : 시청 앞 천막 치고 상황실 설치, 선전물 만들기

저녁 7시 : 상황실 운영 시작, 촛불 집회 및 거리 시위

거리시위 끝나고 : 헌법 1조 길거리 특강

6일

오후 2시 - 5시 : 인권활동가 집담회

저녁 7시 : 거리 시위

거리시위 끝나고 : 헌법 1조 길거리 특강

7일

점심 때 쯤 : 헌법 1조 길거리 특강

오후 4시 : 대학로 집회 / 거리 시위

저녁 7시 : 시청앞 촛불집회

** 공권력 인권침해 상황실은 72 동안 계속 가동됩니다. 4시간 교대 당번입니다. 빈 곳을 채워주세요.

** 거리 시위 코디는 6일 박진, 7일 사랑방, 7일 조미영, 장여경입니다.

시간	6/5일 박진	6/6일 사랑방	6/7일
12-4시		다산인권센터	나현필
4-8시		다산인권센터	명숙
8-12시(오전)			

12-16시(오후)		여진:천주교인권위	
16시-20시			미영
20시-24시	정아, 안티고네	여경	량희

**** 오늘 5시에 천막치고 선전물 만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와 주실거죠?(연락: 김정아)**

**** 날이 좀 춥니다. 따뜻한 여벌옷은 꼭 준비해서 오세요.**

